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역사적 고찰

박 옥 화*

목 차

- | | |
|------------------------------|------------------|
| I. 서 론 | Ⅳ. 1950년대—1960년대 |
| Ⅱ. 창립(1927) | Ⅴ. 1970년대 |
| Ⅲ. 제 1차 대회(1929)—제2차
세계대전 | Ⅵ. 결 론 |

I. 서 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가치가 물질가치 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정보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유통과 관리 문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는 그 기관의 소유물인 동시에 그 국가의 자원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간의 상호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처리하고 배포해야할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점증하는 이용자집단과 그들의 정보요구, 자료비 및 서비스 비용의 앙등 그리고 관련정보에 대한 고도의 사회 의존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부강하고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정보자원의 자급자족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보문제에 대한 협동적 접근법이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 충남대 도서관학과

2 도서관학논집

물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이와같은 국제적 협력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여 왔었다. 고대의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흔히들 ‘국제적’ 도서관으로 꼽고 있다. 이 도서관의 정책은 전세계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서지통정을 통하여 전세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고대의 이른바 ‘국제적’ 도서관시대부터 오늘날의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역사적으로 국제적 협력의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도서관 및 도서관인들간의 뿌리깊은 협력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정보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협력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1927년에 창립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국제수준에서의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창립 이후 오늘날까지 50여년동안 국제대차시스템제도, 목록 및 서지의 표준화, 세계서지통정사업, 국제출판물보급사업 등에 주력하여 왔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IFLA의 창립배경 및 창립이후 1970년대 까지 그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봄으로서, IFLA가 도서관 및 서지분야에 있어서 국제적협력에 얼마만큼 기여하였으며, 또한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창 립

1927년 국제간의 도서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 창립되기 이전부터 몇몇 나라의 도서관계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 올 정보사회를 예측하였던 것 같다. 이 탁월한 도서관인들은 개개 도서관의 자체 所藏 정보만으로는 더 이상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지역간, 국가간,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 도서관협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및 도서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몇 차례의 국제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토의 되어 결국 IFLA 라는 비정치지적 국제기구가 창립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 회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도서관 역사상 최초의 사서들간의 국제회의로 인정받는 것은 1877년 런던에서 개최된 國際圖書館員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f Librarians)라 하겠다.⁽¹⁾ 회의의 명칭은 국제회의였으나 실제 참가국은 5개국으로서 미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의 모임이었다. 비록 참가국은 유럽 중심의 소규모였으나 최초의 국제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후 제일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두차례의 국제적인 규모의 도서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즉, 1904년에는 Saint Louis 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1910년에는 Brussels 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²⁾ 이 두 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국제간의 도서관 협동문제가 토의되었고, 특히 Brussels 회의에서는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앞으로 개최될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곧이어 일어난 제일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IFLA 의 창립은 약 20년은 당겨졌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도서관 및 전문직으로서 도서관직의 발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이 미국과 영국에서 발족되었다. 1876년은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창립된 해였고, 일년 후 1877년에는 영국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두 협회는 비록 그나라

(1). M. Wijnstroo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12. N. Y.; Dekker, 1974. p.403.

(2) Jin-baik Kang. "FID and IFLA; history, defects and relationship," *효성여자대학논문집*, 제20집, 1978. p.18.

(3) Serpil de Costa.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IFLA, 1926—1939." *Library Quarterly*, v.52, no. 1, 1982. p.41.

4 도서관학논집

의 도서관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종 전문분야의 사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조직하였다. (3)

몇 차례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각국의 대표자들은 흔히 同一人일 경우가 많았고, 자연히 도서관간의 국제협력기구의 조직에 대한 토의가 거듭되었다. 도서관 및 서지분야의 國際化를 위한 노력은 개별단위의 도서관에 의해 시도되었다. 예를들면 “Concilium Bibliographicum”은 세계 각국의 동물학분야의 문헌을 망라할 목적으로 Herbert Haviland Field에 의해 세워졌다. 또한 Royal Society of London은 과학분야의 문헌에 대한 국제적인 목록을 만들 목적으로 “International Catalogue of Scientific Literature”를 준비하였다. (4)

이상과 같이 도서관간의 국제협동을 위해 추진하여 오던 모든 계획과 활동들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무산되어 버렸다.

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인한 격변때문에 1926년까지는 국제간의 도서관 협동에 대한 아무런 진전사항도 없었다.

1926년 7월 Prague에서 國際司書 및 圖書愛好家 會議(Congrès International des Bibliothécaires et des Amis du Livre)가 개최되었다. (5) 이 회의에서 프랑스도서관협회(Association des Bibliothécaires Français)의 회장인 Gabriel Henriot는 다양한 국가협회(national associations)의 활동을 조성하고 협동체제를 확립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여 國際圖書館委員會(International Library Committee)의 조직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Henriot가 국제도서관위원회의 조직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제연맹이나 FID와 같은 국제기구보다 훨씬 강력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창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同會議에서 각국 도서관 협회의 대표로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집행부의 주요 기능은 정기적인 국제회의의 개최준비, 1925년에 결성된 국제지식협력협의회(International

(4) *Ibid.*, p. 42.

(5) Peter Havard-Williams. “The history of IFLA.”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31, no. 4, 1977. p. 203.

Institute for Intellectual Co-operation)와 국제연맹 국제지식협력위원회(League of Nation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Intellectual Co-operation)의 집행기관과의 유대관계 수립이었다. 또한 회원협회의 회비의 결정, 諸分野에 있어서의 도서관 및 도서관인의 권익옹호, 국제서지의 준비, 고문서학자와 사서들간의 관계 모색, 모든 회원국의 관심이나 국제적인 문제의 조사연구 등이 새로 조직될 위원회의 업무 및 목적으로 정해졌다.⁽⁶⁾ 이 업무는 IFLA의 장래 국제활동에 대한 청사진이 되었다. Prague 회의에서 제안된 도서관의 국제적인 유대강화에 대한 Henriot의 착상은 같은 해 10월에 열린 ALA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채택되었다. ALA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Atlantic City와 Philadelphia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저명한 외국대표들을 초청하였다. 대회기간 동안에 國際圖書館 및 書誌委員會에 관한 문제를 다시 토론하게 되었다. 거듭된 토론 결과 원칙적으로 Henriot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면밀한 심의검토를 위해 이를 각국 협회에 회부하였다.⁽⁷⁾

Henriot의 제안이 ALA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회의대표들은 결의안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국가협회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다. 국가협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는 일단 조직된 임시위원회가 협회구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임시위원회는 파리에 사무소설치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Henriot를 임시위원회의 대표로 선임하여 파리로 파견하였다.⁽⁸⁾

중요 임무를 맡은 Henriot는 IIIC의 대표와의 회합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기꺼이 협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IIIC대표는 國際圖書館 및 書誌委員會의 설치에 대한 세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IIIC에 근무를 두고 편의를 제공받는 방법, 둘째, IIIC의 조직중의 하나로서 국제연맹의 인정을 받고 운영경비를 보조받는 방법, 셋째,

(6) *Ibid.*, p. 204.

(7) *loc. cit.*

(8) Costa, *op. cit.*, p. 44.

IIIC와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완전한 독립 형태를 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Henriot는 셋째번의 가능성에 호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떤 후원 단체들과도 독립하고 싶은 때문이었을 것이다.⁽⁹⁾

1927년 영국도서관협회가 50주년 기념대회를 Edinburgh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15개국 대표들이 國際圖書館 및 書誌委員會(ILBC: International Library and Bibliographical Committee)⁽¹⁰⁾를 구성하는 결의에 서명함으로써 드디어 IFLA가 비정치적 국제기구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IFLA의 창립 멤버는 오스트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 스위스 미국, 중국 15개국으로서 캐나다,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諸國이었으므로 창립초기의 모든 운영, 활동방향이 자연 유럽 위주로 되는 경향이있어 참다운 국제조직이 되지 못하였다.⁽¹¹⁾

15개국 대표들이 서명한 결의에 따라 ILBC는 각 참가 국가도서관협회로 구성되었다. ILBC의 임무를 보면, 국제도서관회의의 시기와 장소의 선정; 분과 위원회와의 협력하에 회의의 프로그램 준비; 도서관, 사서, 서지가협회 및 그의 기관들간의 국제 관계를 조사·보고 및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¹²⁾

국제대회는 적어도 5년마다 한번은 개최되어야 하며, 그 첫번째 회의가 1929년이나 1930년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결의사항은 또한 ILBC가 분과위원회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도록하였다. 그리고 ILBC의 집행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모두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사무총장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국가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로 제한하였으므로 당시 국제연맹 도서관장 Sevensma가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¹³⁾

ALA는 ILBC의 체제 확립에 주도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27-1929년간

(9) Havard-Williams. *op. cit.*, p. 204.

(10) 국제도서관협회연명의 최초의 명칭

(11) Kang. *op. cit.*, p. 18.

(12) Costa. *op. cit.*, p. 45.

(13) *loc. cit.*

소요될 약 2,000달러의 예산중에서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¹⁴⁾

1928년에는 11개국의 대표들이 로마에 모여 첫번째 회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때 맞추어 이탈리아 정부가 이 최초의 국제회의의 유치의사를 표명하여, 1929년 로마에서 제 1차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가장 바람직한 장소로는 제네바가 결정되었다.

또한 이 11개국의 모임에서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즉, 분류법(classification schemes); 목록규칙(cataloguing rules); 서지 및 서지 약어의 국제코드(bibliographies and an international code of bibliographical abbreviations); 사서들의 국제교류(international fellowships and exchange librarians); 도서관학교육(education for librarianship) 정관(by-laws) 분과위원회가 ILBC의 목적과 계획에 부응하도록 조직되었다.⁽¹⁵⁾

Ⅲ. 제 1차 대회(1929)—제 2차 세계대전

1929년 제 1차 國際司書 및 書誌家大會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Collijn 회장은 이 회의에서 이제 ILBC의 제반 활동이 확대, 발전되었음에 비추어 새로운 조직의 명칭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였다. Collijn 회장의 제안에 대한 간단한 토론 결과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이라는 새명칭으로 개칭되었다.⁽¹⁶⁾

제 1차 대회 기간에 IFLA의 정관이 채택되었고, 정관에는 IFLA의 목적이 “국제적인 도서관협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정의되었다. 또한 스위스대표 Godet가 제안한 국제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논의한 결과 대회의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 예를들면 도서관 간의 국제관계, 국제서지,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서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나 특수하

(14) *Ibid.* p. 44.

(15) Harvard-Williams. *op. cit.*, p. 204.

(16) Costa. *op. cit.*, p. 46.

지 않는 일반적인 문제로 제한하였다. 회원의 자격은 각국의 도서관협회로 하되 도서관협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를 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재원문제에 관하여서는, ALA 대표 Bishop이 회원협회로부터 규칙적으로 회비를 납부받는 방법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¹⁷⁾ 따라서 1차 대회 기간에 IFLA의 정관이 정해짐과 동시에 목적, 성격, 활동범위, 회원자격, 재원문제 등이 처리되어 IFLA의 윤곽이 정해졌다. 이 대회에서 22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제 1차 대회의 진행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회의의 준비를 담당한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맡은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인쇄되지 않았고 회의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Collijn은 Bishop, Krüss와 함께 프로그램을 임시변통으로 만들어 겨우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대회의 시작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징후는 보였다. 대회업무는 16개 부회(sections)로 분담하였고, 이 중 많은 부회가 일년전에 조직된 분과위원회와 부합되었다.

대회의 결의안들은 bibliographical abbreviations 대한 국제코—드에 관한 것들로서 국제서지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명목록(Institutions list); 도서와 사본의 보호; microphotography와 영사설비가 갖춰진 도서관목록; 직원의 교환; 전문적인 도서관학교; 독립 건물 사무실이 있고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는 회원협회의 목록; 국제 교환; 출판물과 학위논문 교환협정; 통계의 표준화; 서지정보를 위한 국가 센터의 설치; 국제지식협력회의(International Commission for Intellectual Co-operation) 및 IIIC와 IFLA와의 관계에 관한 결의안들이었다.⁽¹⁸⁾ IFLA의 업무는 이제 이 결의안들을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무국장으로는 국제연맹 도서관장 T. P. Sevensma가, 사무부국장에는 Brecha-Vauthier가 선임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IFLA에 대한 Sevensma의 공헌은 너무나 지대하여, 1939년 “T.P.

(17) *loc. cit.*

(18) Havard-Williams. *op. cit.*, p. 205.

Sevensma 상”제도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새 연맹의 1차 대회까지의 활동은 창립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창립 후에는 공적 조직으로서의 제도화에 집중되었다.

최소한 5년에 한번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규정보다 일년이 늦어진 1935년 제 2차 국제대회가 마드리드에서 열리게 되었다. 1차 대회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2차 대회의 주제는 “國際貸借시스템(International Loan System)”이었다.⁽¹⁹⁾

연맹의 집행위원회는 國際貸借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스위스 대표 Godet는 이를 제 2차 세계대회의 논제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대회개막 이전까지 각국 회원협회로부터 상호대차의 정책과 사례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아서 2차 대회의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드리드대회에서 國際貸借시스템의 세부사항이 결정되었고, 참가도서관들에게 통일규칙을 제공하였다. 이 계획에는 19개국에 참여하였으나 또 다시 일어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개발은 중단되고 말았다.

제 2차 대회의 성과는 國際貸借시스템 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직접적인 성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업적은 이 대회를 계기로 스페인파 카탈로마(Cataloma)에서 국가도서관협회가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도서관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主 論題인 國際貸借 이외에 “圖書館과 現代生活”이 本會議에서 논의되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각각 그들의 특수 요구를 충족하는 부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특수도서관, 의회도서관, 도서 및 도서관분야 표준화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²⁰⁾ 이와같은 부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립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IFLA의 관심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드리드 2차대회 폐막전에 스페인의 항구도시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는 집행위원회(International Library Committee)의 회의가 있었다. 이

(19) Costa. *op. cit.*, p. 49.

(20) *Ibid.* p. 50.

회의에서 IFLA의 창립멤버인 독일대표 Krüss는 다음 제 3차 대회를 Guteberg의 인쇄술 발명 500주년과 일치하는 1940년에 독일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독일정부의 IFLA 대회 유치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IFLA는 그 존재마저 위협을 당할 만큼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집행위원회의 일부 대표들이 Hitler의 나라에 가는 것을 꺼려한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ALA 간사인 Milam은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선언하였다.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적어 놓은 그의 노트에는 “Collijn과 Krüss는 독일정부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동료들과 나는 독일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Cambridge로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작 영국사서들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필시 정치적인 논쟁을 야기시킬 초청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²¹⁾

반면, 독일사서들은 만일의 경우 본국의 초청이 거절당한다면 독일협회는 IFLA에서 탈퇴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독일 사서들, 특히 Krüss는 창립 이래로 IFLA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독일의 탈퇴는 IFLA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이는 IFLA의 크나 큰 퇴보가 될 것이 예상되어 많은 대표자들은 IFLA의 분열을 우려하였다. 노르웨이 대표인 Munthe는 ALA 대표 Bishop에게 “필라델피아에서 착상되고, 에딘버러에서 탄생되었으며, 로마에서 명명된 IFLA가 이제 미국에 의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귀하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서한을 보냈다. Bishop은 독일정부로부터의 초청을 독일도서관협회로부터의 초청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제 3차대회를 위한 계획을 착수하였고 “microphotography”로 그 주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제 2차 세

(21) *Ibid.* p. 51.

계대전으로 인하여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²²⁾

창립 이후 10여년동안 IFLA는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31개국 41개협회가 연맹에 가입하였지만 또다시 일어난 세계대전은 도서관계의 범세계적인 통합과 협력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IFLA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 2차 세계대전시 Marcet Godet IFLA 회장과 Breycha-Vauthier 사무 부국장이 중립국 출신이었던 관계로 연맹이 존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정치적인 국제기구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계속하기 위하여 1946년 헤이그에서 회합을 가졌고 1947년에는 룩셈부르크의 후원으로 종전후 처음으로 Oslo에서 대회를 갖게 되어 18개국에서 5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²³⁾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한 도서관계의 피해도 극심하였다. 많은 도서관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장서 또한 온전히 보존될 수 없었으며, 발전 중에 있던 도서관 조직체들의 기능은 마비상태였다. 따라서 오슬로 대회는 국제간의 상호대차제도의 재구성, 도서관복구, 장서의 보충, 마이크로필름의 이용권장, 도서관협회의 재구성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Oslo 대회의 주요성과 중 하나는 도서관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협정을 Unesco와 IFLA 간에 체결한 점이다. 이외에도 국제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Godet 회장은 동유럽과 개발도상국, 특히 소비에트연방 도서관과 관계수립을 도모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국제적인 체제와 규격의 목록카드를 채택하자는 결의인 바, 이는 목록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하겠다.

(22) *loc. cit.*

(23) Margreet Wijnstroo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icago:ALA, 1980), p. 261.

(24) *loc. cit.*

Ⅳ. 1950년대—1960년대

비록 전쟁은 겪었다고 하더라도 창립이후 1950년대까지 IFLA의 발전속도는 매우 느린 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IFLA 발전의 저해요인은 무엇이 있었을까? 재정상의 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IFLA 자체 조직상의 결함을 들 수 있겠다. 우선 IFLA가 비정치적 기구인 동시에 그 목적과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이념이 다른 개개의 국가단위협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적 분쟁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예로는 2차 대전 직전 독일정부가 IFLA 대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함으로서 겪었던 위기를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IFLA가 과연 진정한 국제기구인가 라는 문제점이다. 1954년 S. R. Ranganathan은 이 물음에 대하여 “IFLA는 국제적인 조직이 아니라 서유럽인들의 조직”이라고 솔직히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IFLA는 회원협회의 편중으로 인하여 활동방향, 태도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도 유럽, 특히 서유럽 위주였으며, 1950년대까지는 부자들의 클럽(rich men's club)이었다.

그리고 도서관분야에서 사서들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심과 특수분야에 대한 관심과의 대립문제이다. 그 예로 1930년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IFLA가 연구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²⁵⁾

이러한 논란과 비판으로 인하여 IFLA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자체 개혁이 단행되게 되었다. 1952년 코펜하겐대회에서 Pierre Bourgeois 회장은 IFLA의 업무가 25년전 창립당시에 비해 상당히 복잡해졌음을 지적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서보다는 특수전문가가 요구되었고, 기구의 확장 또한 요청되었다. Bourgeois의 理想

(25) Kang. *op. cit.*, pp.20—21.

은 지역위원회를 조직하며, IFLA 에 대한 협회회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정관은 ILC(IFLA 집행위원회)를 Council 로 변경하고 ILC 의 局(Bureau)을 집행위원회로 인정하였다.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국제기구에게도 각 국가협회와 동등하게 정회원자격을 부여하였다.⁽²⁶⁾ 1955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도서관협회(Korean Library Association)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953년 Bourgeois 회장은 Libri (1950-)와 협정을 체결하여 IFLA Communications 라는欄하에 IFLA 의 보고서, 페이퍼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16페이지의 지면을 할당받았다.⁽²⁷⁾ 이 협정은 Unesco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IFLA Journal(1975-)이 출판되기까지 Libri 는 IFLA 의 활동을 소개하는 무대가 되었다.

1960년대는 IFLA 의 성장기였다. 1960년 룬드(Lund)대회의 참가자수가 IFLA 역사상 최초로 100명선에 육박하였고 1960년대 말에는 1,000명선에 이르러 전문가회합으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킬 위험마저 감돌 정도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극히 소규모의 회의, 예를 들면 1930년 스톡홀름대회의 38명의 참석과 비교하면 상당히 확장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대까지도 유럽위주의 기구라고 해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제 제 3세계의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규모의 확장으로 인한 정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64년 로마회의의에서는 개정통합형식의 정관이 채택되었다. 개정정관에 명시된 IFLA 의 목적을 보면 “도서관직과 서지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시키며, 특히 도서관, 도서관협회, 서지학자 및 기타 조직체간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개정 정관에서는 준회원제도를 설정하였는 바, 준회원은 도서관, 서지기관 및 도서관과 관련된 유사기관으로

(26) Havard-Williams, *op. cit.*, p.207.

(27) *loc. cit.*

그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준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지만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⁸⁾ 도서관협회만을 회원으로 하던 종래의 제도에 비해 개개의 도서관의 연방가입을 인정한 새 정관은 IFLA의 활동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IFLA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개개 도서관, 서지기관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활동은 1970년대에 이르러 또다시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1960년대에는 주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그중 특기할 것은 목록 및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 목록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1954년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IFLA는 도서관학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목록규칙에 있어서 분제점으로 되어 있는 저자미상(anonyma) 도서와 공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主記入의 설정을 목적으로 목록원칙의 국제조정을 위하여 8명의 목록실무위원회를 임명하였다.⁽²⁹⁾

주가입 설정을 위한 그들의 연구보고는 1955년 9월 브르셀에서 열린 국제도서관회의에 제출되었는데 결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목록규칙들은 어떤 명백한 원칙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록규칙들 가운데서 통일원칙을 끌어낸다는 것은 목록규칙 자체의 모순과 불일치로 인하여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목록규칙을 제정하거나 관습적인 것에 대한 비평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통하여 어떤 경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IFLA 실무위원회는 특정분야, 예를 들면 저자미상이나 공저자 작품에 대한 記入(entries)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록기입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국제적인 목록회의를 조직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국제목록원칙회의(ICC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를 탄생시킨 것이였다.⁽³⁰⁾

(28) M. Wijnstroom, *op. cit.*, p. 405.

(29) Dorothy Anders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al records: The work of the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 27, no. 2, 1973, p. 66.

(30) *loc. cit.*

1959년 7월 런던 예비회의에서 1961년으로 예정된 전체회의(ICCP)의 토의 의제를 정하고, 또한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할 목록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미리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CCP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의의 목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저자 및 서명의 알파벳순 목록에 있어서 기입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는 데 ICCP의 목적을 둔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³¹⁾ 그리고 런던 예비회의에서는 ICCP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원칙들을 다음 여섯가지로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³²⁾

1. 주기입의 기능에 관한 원칙.
2. 주기입의 선정에 관한 원칙.
3. 개인저자에 관한 원칙.
4. 단체저자에 관한 원칙.
5. 서명기입에 관한 원칙.
6. 형식표목에 관한 원칙.

1954년 이래 목록원칙의 조정을 위한 노력끝에 1961년 10월 파리에서 국제 목록원칙회의(ICCP)가 도서관자원협의회(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원조로 개최되었다. 53개국의 대표와 12개 국제기구대표 105명 및 읍저비 104명이 참가한 사상 최초의 국제적인 목록회의에 한국대표로는 이 봉순교수(이화여대)가 참석하였다.⁽³³⁾

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³⁴⁾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각국의 목록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며, 동 원칙이 국가서지의 편찬에 고려되도록 할 것을 각국 대표들에게 권고하였다.

파리의 국제목록원칙회의는 도서관계, 특히 목록자들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출판한 “한국

(31) *Ibid.*, p. 67.

(32) 장일세, “목록규칙의 국제적 동향,” *국회도서관보*, 제2권 제3호, 1964, 3, p. 15.

(33) *loc. cit.*

(34) 이재철(역), “국제도서관협회연맹목록원칙 국제회의: 예비공식보고,” *도협월보*, v. 3, no. 3, 1962, pp. 11--19.

목 규칙”은 동 결의사항을 충분히 반영시킨, 파리회의의 귀한 소득이라 볼 수 있다.

Ⅴ. 1970년대

“1970년대는 도서관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면에서 특히 개발도상국 사이에 새로운 시대의 장이 개막되었다.”⁽³⁵⁾라고 J. S. Soosai가 평가한 대로 1970년대는 개발도상국들이 IFLA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8월,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동남아시아도서관회의(CONSAL)가 개최되어 동남아시아 7개국의 도서관 전문직 사서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1971년 리버풀에서 개최된 제37회 IFLA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간의 국제협력이 고조되었다. 리버풀회의의 최대 성과는 개발도상국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for Developing Countries)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한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 실무위원회는 IFLA의 다른 부회 및 위원회와 협력하는 기관으로 행동하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공동관심분야의 도서관 문제를 토의하는 광장으로서 창설된다. ... 동 위원회의 최초의 업무는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며, IFLA 체제내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방법을 모색한다.」⁽³⁶⁾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모든 나라의 사서들의 협동을 소중히 여기며, 장차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IFLA의 목적과 일치되며, IFLA 사업의 우선순위는 도서관과 도서관봉사의 개발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도서관조직이 약한 나라에게는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연맹의 활동에 참여케 하는 데 주어진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IFLA 회장 Herman Liebaers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1971년 리버풀에서 영어권 개발도상국을 위한 예미 세미너가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불어권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세미너는

(35) 龍岡興太郎, “IFLAと南北問題”, 圖書館雜誌, v. 74, no. 11, 1980, p.611.

(36) *loc. cit.*

1973년 그레노블에서, 스페인어권에 속하는 제국을 위한 세미나는 1974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³⁷⁾

개발도상국이 IFLA에 가입한 숫자는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4배 이상이 증가되었다. 1972년까지 연맹에 가입한 개발도상국 협회수는 48개 협회였고 1980년에는 그 수가 급증하여 228개 협회에 이르렀다.⁽³⁸⁾ 이와같은 IFLA에의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부응하여 연맹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기에 이르렀다. 즉, 1976년 IFLA를 재조직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역활동 특별부회를 IFLA의 8개 전문부회 중의 하나로 설립하였다.

IFLA의 장기계획인 “세계의 도서관(Libraries in the World)”이 1963년에 발표된 이래,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IFLA 자체내에서도 개개 도서관과 기타 기관들의 준회원 가입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의 연맹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요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위원회는 IFLA 이사회와 기타 기관이 1980년까지의 연맹사업의 기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목적으로 IFLA 중기사업계획인 1975—1980(IFLA: Draft Medium-term Programme 1975—1980)을 편찬하였다. 중기사업계획안에도 개발도상국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맹이 제시한 개발도상국에 일반적인 지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도서관봉사의 계획과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도서관이나 도서관조직의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사업에 사용될 유네

(37) Havard-Williams. *op. cit.*, p. 208.

(38) 荒岡興太郎, *op. cit.*, p. 611.

(49) 윤구호(역),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중기사업계획안,” *도협월보*, 제16권 제3호, 1975, pp. 13

스코와 기타 재원에서 얻어지는 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를 한다.

넷째, 도서관협회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국제활동을 하기에 너무 약한 국가에 있어서 유사한 협회의 구성을 추진한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에게도 이사회회의 대표권을 인정하여 IFLA의 제반사에 보다 강한 발언권을 한다.

여섯째, IFLA의 지역사무소(branch)를 설치한다.

일곱째,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에서 IFLA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총회 및 대회참석을 지원한다.

이상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IFLA의 지원 계획에 따라, IFLA가 창립된 이후 약 50년만에 최초로 아시아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이 회의가 바로 한국에서 개최된 1976 IFLA 국제회의였다. 1975년까지는 사무회의와 전문회의를 동시에 열었으나 1976년 서울국제회의부터 분리하여 개최되었다.

서울국제회의(전문회의)의 주제는 “도서관 자원과 국가발전(Library Resources and National Development)”이었고, 부주제는 “동·서에 있어서의 동양자료의 이용과 통제(Use and Control of Eastern Publications)로 결정되었다. IFLA 부회장 Peter Havard-Williams는 기조연설에서 “국가발전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증시하고, 지식 산업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국가지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요원이 다 같이 골고루 이용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⁰⁾ 회의는 다음과 같은 11개 항목의 제안⁽⁴¹⁾을 IFLA 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일주일간의 막을 내렸다.

1. 동양국가들의 도서관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동남아도서관인대회(CONSAL)와 유사한 동양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서관인 조직체 구성을 제의한다.

2. 동양의 공공도서관 봉사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동양 공공도서관에 맞는

(40) Peter Havard-Williams, "National development and library resources,"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 KLA, 1976), pp. 55-54.

(41) 이봉순, "IFLA 서울대회를 마치고" *국회도서관보*, 제13권 제4호, 1979. pp. 39-40.

기준을 동양지역의 도서관인들이 제정할 것을 제외한다.

3. 동양지역에서 출판되는 도서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동양 출판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양지역센터의 설립을 제외한다.

4. 동양자료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동양의 출판사들은 원서명과 함께 영문서명을 첨가하여 동양인이 아닌 이용자들이 하여금 새로운 출판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것은 제외한다.

5. 세계출판물보급(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은 국가 및 국제도서관 상호대차 업무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차조건을 명시하는 국제대차규칙 제정을 제외한다. 이 규칙에는 각 도서관의 대차 가능 및 불가능한 자료의 종류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영미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이 개정되고 있는 이 때, 이 규칙의 개정편자들은 영미목록규칙의 국제적인 사용을 감안하여 특히 동양 출판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7. 국제목록기준에 있어서 동양자료 취급과 국제표준서지기술법(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s) 제정에 동양출판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대표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나아가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특정지역 자료부문에서 목판본과 권자본도 취급할 것을 제외한다. 본 기술법에 명시된 지역은 특정자료의 특수성을 나타내며 이것은 모든 형태의 문자에도 확대될 것을 제외한다.

8. 동양도서의 관련지 및 권말간기 사용은 더욱 개발되어야 하며 여기에 분류번호 같은 정보를 첨가하여 출판물목록정보(CIP: Cataloguing-in-Publications)로 확대시킬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CIP 기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지는 동양도서 편목에 있어서 표제지보다 우선적인 목록정보의 출처로 할 것을 제외한다.

9.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을 다른 언어나 문자로 바꾸는데 있어서 특히 좌횡필기법(scripts running from the right to left)을 사용하는 문자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ISBDs 기술법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반

향구두절(mirror-image punctuation)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의한다.

10. 한국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고려할 때 IFLA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회의 개최 및 이를 권장할 것을 제의한다.

11. 모든 나라는 국가발전계획에 도서관발전계획을 반영시킬 것을 제의한다.

IFLA 서울국제회의가 한국의 도서관계에 남긴 성과는 Harvard-Williams의 강조대로 도서관 자료는 소속기관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국가의 자원으로 사회발전을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상호협력이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도서관 봉사 의 새로운 개념을 심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도서관분야의 발전에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 나아가 유럽 및 아메리카 도서관인들로 하여금 동양의 도서관인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IFLA는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맹의 연구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IFLA 중기사업계획안을 발간하였다. 이 사업계획 중에서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세계서지통정(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세계출판물보급(UAP: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을 들 수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세계서지통정(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IFLA가 1970년대 이래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서지통정이라는 사업의 명칭은 1966년, 헤이그에서 열린 IFLA 총회에서 비롯되었다. 헤이그 총회에서 미국의회도서관측이 분담목록계획(Shared Cataloguing Programme)을 처음 발표하고 있을 때, 유베스코 직원 Carlos V. Penna가 “그것은 Universal Bibliography Control이다.”라고 의견에서 유래되었다고 Herman Lie-

baers 는 말하였다. 세계서지통정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세계 도서관인의 의식 속에 UBC 를 심어 준 것은 분담목록계획의 발표에서였다. (42)

세계서지통정이라 함은 전세계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의 기본 서지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승인된 형식에 의해 상호 교환하여 세계의 출판물 정보를 완전히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UBC 를 위한 지침이 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43) 즉, 출판물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생산되어야 하며, 이 신속성, 정확성, 간결성을 위하여 서지데이터는 기계가독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출판물이 생산되는 본국의 서지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UBC 는 국가서지의 작성과 국제적 표준에 의한 기술(description) 및 국가서지작성기관, 도서관, 정보자료의 국제적인 교환 및 협력의 문제가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44) UBC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출판 및 도서관 활동을 망라하는 요소로 망(network)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 국가수준의 망은 국제수준의 망으로 통합되어 총체적인 시스템을 형성하여야 한다. (45) 그러므로 UBC 시스템은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필수요건이 제기되고 있다. (46)

국가적인 필수요건은 출판물이 생산되는 즉시 서지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예 : 납본제도 등)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서지작성기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첫째, 본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서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둘째, 그 서지기록을 국가서지에 최단기간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셋째, 서지기록을 표준형태(카드, 기계가독형태—프 등)로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넷째, 다른 나라의 국가서지작성기관에서 출판한 서지기록을 수령하거나 배포하여야 하며, 다섯째, 가능한 한 본국의

(42) 이병수, "세계서지통정과 국제표준서지기술," *도협월보*, v.18, no. 1, 1977, p.7.

(43) Franz Georg Kaltwasser "Universal bibliographical control (UBC),"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 25 no. 5, 1971, p. 252.

(44) 이병수, *op. cit.*, p. 7.

(45) Dorothy Anderson,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the National Bibliography." In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KLA, 1976), p. 179.

(46) 이병수, *op. cit.*, p. 7.

소급적인 국가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수준에서는 국가서지작성기관의 활동을 총체적 시스템이 되도록 통합하는 것이며, 국가서지작성기관은 그 나라의 출판물에 대한 권위있는 서지데이터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국제표준이란 내용면에서 볼 때, 서지기록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 기재순서, 각 요소와 기능을 식별하는 수단(구두절)의 표준화이며, 기술적인 면에서는 입·출력하는 프로그램의 표준화, 기록형태의 표준화, 메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의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UBC 시스템 계획을 1971년 Herman Liebaers 회장이 착수하였고, British Library 안에 UBC 사무국을 설립하여 이 계획의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국제표준서지기술법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세계서지통정의 장기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 ISBD의 가능성을 최초로 논의한 것은 1969년 IFLA 목록위원회에 의하여 개최되었던 국제목록전문가회의(IMCE: 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에서였다.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세계서지통정의 효용성 여부가 표준서지기술법에 의존되어 있음이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⁴⁷⁾

모든 출판물의 표준적인 서지기술법을 제정하고 이 기술법이 각국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인준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국제정보교환제도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경주되어야 한다.……이 제도의 효용성 여부는 서지기술법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으로 표준화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다.

1969년 10월 단행본용 국제표준서지기술법 <ISBD(M)> 표준안을 작성하기

(47)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표준서지기술법: 단행본용, 리차질, 현규섭(공역), (서운: 한국도서관협회, 1976), p.7.

위한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어 ISBD(M)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⁴⁸⁾

ISBD(M)의 목적은 단행본 즉, 비연속간행물의 서지기술에 있어서 기술 사항의 표시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데우리를 정하는 데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출판물의 효과적인 국제적 유통을 위한 세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첫째, 한 국가내에서 작성한 서지기록이나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작성한 서지기록이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의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 각국에서 작성한 서지기록들이 여러 종류의 목록과 파일 속에 통합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에서 작성한 서지기록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목록과 파일 속에 통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필사본이나 인쇄본의 서지기록을 기계가독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ISBD(M)의 원안은 실무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토의를 거쳐 3개의 초안을 검토한 후 1971년 리버풀에서 개최된 IFLA 총회 목록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초안은 同年 권장안으로 발간되었고 70개 이상의 국가서지기관들에게 배부하여, ISBD(M)의 채택 가능성의 여부를 조사 의뢰하였다. 1972년 영국, 프랑스, 서독 3국의 국가기관이 ISBD(M)의 채택에 동의하였으며, 3국의 채택으로 다른 국가들도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4년에는 미국이 동의하였으며, 영비목록규칙 제6장 단행본 항목의 개정판이 나오게 된 토대를 마련하였다.⁽⁴⁹⁾

ISBD(M)은 1971년 권장안이 나온 이래, IFLA 목록위원회에 접수된 논쟁은, 본문의 약간 애매한 부분과 해석상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었다. 이로 인해 개정회의가 1973년 8월 그러노블에서 개최되어 1974년 ISBD(M) 제 1 포준판이 발행되었다.⁽⁵⁰⁾

단행본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자료를 위한 표준서지기술법 제정에 대한 요청

(48) Dorothy Anderson. "IFLA's programme of ISBD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32, no.3, 1978, p.145.

(49) *loc. cit.*

(50) *Ibid.*, p.146.

이 IFLA 목록위원회에 들어왔다. 연속간행물용 ISBD의 제안이 1971년 리버풀에서 개최된 IFLA 총회에서 주장되어 목록 및 연속 간행물위원회 합동 실무단(Joint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s of Cataloguing and Serial Publications)이 1972년에 설립되었다. 합동실무단에 의해 작성된 ISBD(S)의 첫번째 초안이 1972년 2월 각 실무위원회에 배포되었고, 2번째 수정초안이 6월에 각국의 목록위원회, 국립도서관, 연속간행물센터 등에 널리 배포되어 논평을 구하였다. ISBD의 초안이 각국의 도서관계에서 호평만을 받은 것은 아니며 비난의 소리 또한 높았고 특히 ISBD(S)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다.

ISBD의 전체 유형(ISBDs)에 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ISBD(G)(국제표준서지기술법:공통용)의 작성을 결정하였다. IFLA의 ISBD 프로그램은 모두 ISBD(G)체제를 따르기로 하였고, ISBD(S)에도 즉시 영향을 끼쳤다. 1975년 10월, ISBD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모든 실무위원회의 대표와 영미목록규칙개정 합동상임위원회의 대표가 회합을 가졌고 ISBD(G)에 대한 12조항을 발표하였다.⁽⁵¹⁾

1975년에는 지도자료용(Cartographic Materials) ISBD(CM) 및 비도서자료용(Non-Book Materials) ISBD(NBM)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어, 1977년 8월 ISBD(NBM), ISBD(S) 제 1 표준판, ISBD(CM), ISBD(G) 주석판이 발간되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분야는 ISBD(Music), ISBD(Old Books)가 있다.⁽⁵²⁾

세계출판물보급(UAP: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1970년대의 IFLA 프로그램 중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가 세계출판물보급을 위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8월 체코스로바키아의 Strbské pleso에서 개최된 제44회 IFLA 총회의 주제가 바로 UAP였다. British Library

(51) 이병수, *op. cit.*, p.9.

(52) Anderson, *op. cit.*, 1978, pp.147-148.

의 아-크하-트박사의 UAP 에 관한 강연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FLA 는 전세계에 어떠한 자료가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서지통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세계서지통정이 요구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음을 확인했더라도 그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계서지통정 프로그램도 효용성이 없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UAP 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UAP 는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 다만 오래전부터 있어 온 주제를 다시 직시하려는 것 뿐이다……”⁽⁵³⁾

즉 UAP 는 전세계의 모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세계서지통정과 상호보완의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서지통정은 출판물의 서지적인 접근이며, UAP 는 출판물의 물리적 접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IFLA 가 UAP 의 필요성을 최초로 공인한 것은 1974년 11월 IFLA 총회에 앞서 열린 국제대차 및 종합목록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Lending and Union Catalogues)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였다.

“국가 및 국제도서관 계획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요소로서, 또한 UBC 의 자연적인 부수물로서 출판물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즉 국제대차봉사의 유용성과 속도를 증가시키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개발하는 노력이 국내 및 국가들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UAP 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계의 모든 이용자 개개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출판 기록을 원본 또는 부산물로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UAP 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남본제도와 그 밖의 수서방법, 종합목록(Union Catalogues)과 같은 수단을 통한 도서관간의 조정, 즉각 이

(53) 今まど子. “第44回 IFLA 評議會の報告.” 圖書館雜誌, v. 73, no. 4. 1978, p. 203.

(54) M. B. Line.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IFLA's programme of U. A. P.,”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76), p. 304.

용을 가능케 하는 도서관 시스템의 조직, 국제도서관대차와 복사, 출판물의 교환, 국립도서관 및 국가센터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장기 프로그램인 것이다.⁽⁵⁵⁾ IFLA는 British Library의 Lending Division에 UAP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 계획의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IFLA의 주요 프로젝트들 이외에 1970년대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정관 개정이라 하겠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IFLA 회원국, 정회원국, 준회원의 증가는 1964년에 수정된 바 있는 정관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1970년 이후 집행위원회는 정관의 개정을 토의하였으며, 1971년에는 정관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관실무위원회는 준비한 초안을 각 회원협회에게 배부하여 논평을 구하였다. 1975년 오슬로의 제41차 IFLA 총회는 오직 정관만을 집중 토의하였으며, 1976년 로잔느에서 새 정관이 채택되었다.⁽⁵⁶⁾

새 정관의 특징은 IFLA의 명칭을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표결권이 없이 준회원으로 IFLA 활동에 참여하여 왔던 개별 단위기관 즉 도서관, 서지기관 및 이와 관련된 유사기관들의 IFLA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표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IFLA의 명칭에 기관(institutions)을 첨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제도서관협회 및 기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라는 새로운 명칭하에 각 개별 도서관, 서지기관은 도서관 봉사를 위한 국제협력에 이전 보다 훨씬 더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IFLA의 주요 사업들, 즉 세계서지통경, 목록 및 서지의 표준화, 출판물 국제대차 및 상호교환, 세계 출판물보급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주축이 될 것이다.

(55) *Ibid.*, p. 302.

(56) *Havard-Williams. op. cit.*, 1977, p. 203.

Ⅴ. 결 론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서관계의 선각자들은 앞으로 닥아 올 사회는 이른바 정보사회가 될 것이며 개개 도서관의 자체 정보만으로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닥아 올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협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효율적인 도서관활동을 수행할 국제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1927년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의 도서관계 대표들이 국제도서관 및 서지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함으로써 마침내 도서관 및 서지분야의 국제 협력활동을 주도할 국제기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同위원회가 창립된 지 2년 후인 1929년에는 기구의 확장과 활동범위의 팽창에 부응하여 국제도서관협회연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립이래 국제대차시스템계획 등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창립이후 1950년대까지는 회원협회국의 유럽편중으로 인하여 연맹의 활동 방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자연 유럽위주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원자격을 국가협회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범세계적 협력이 요청될 수 밖에 없는 연맹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64년에는 개별 도서관, 서지기관 및 관련기관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케함으로써 IFLA의 활동범위는 확대되었고 IFLA의 계획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의 명칭에 Institutions을 삼입함으로써 각 개별단위의 기관은 도서관 봉사를 위한 국제협력에 이전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IFLA의 주요 업적은 창립 목적대로 도서관간의 국제협력을 촉진시켜 온 데에 있으며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보봉사 확대 제공하고자 개발한 “세계서지통정사업” 및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간주되는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제정, 그리고 “국제대차제도”와 “출판물상호교환”, “세계출판물보급”사업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IFLA의 본래의 목표와 이들 사업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각 회원국은 自國內의 도서관 및 정보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독자적인 국가정보시스템망을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IFLA의 업무수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각 회원협회는 물론 도서관 및 정보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nesco, FID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도서관 발전, 특히 국가 정보정책 수립과 국가정보시스템망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각주로 대신함.

Historical Study of IFLA

Park, Ok Wha

〈Abstract〉

The information material in the library or in the information service center is at once its own property and the national resources, so that every citizen in the country has the right to the equal use of i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Library co-operation enables every citizen to use easily and equally the materials in the library.

In the informational society of today, owing to the information explosion, the increase in the various user's demand of the information, and the rise of the cost of information material, even the richest and highly advanced country cannot be self-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ibraries seems to be the best way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self-sufficienc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background of IFLA founded in 1927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and its development up to 1970'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by introducing IFLA's programs of UBC, ISBD, and UAP,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IFLA'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d librarianship.